



KOBA 2019 Audio issue

글. 한광만 SBS 종합편집실 (방송과기술 편집위원)

음향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면 소리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들어보지 못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영상 장비들과는 다르게 음향 장비들은 설치에 신경 쓸 것이 많다. 영상 장비는 모니터 세팅을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음향 장비들은 장비에 스피커들이 추가된다. 기본이 스테레오이며 트렌드에 따라 다채널의 스피커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KOBA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 시켜주었을까? 사용자가 알고 싶었던 소리에 대한 궁금함을 어떻게 채워 주었는지 눈에 띄었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음향 전시장은 언제나 시끄럽다. 각 제조사의 스피커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며 관람객의 귀를 자극한다. 가끔은 너무 큰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픈 경우가 생기지만 그래도 관람객은 좋은 소리를 찾으러 온다. 마이크에 관심이 있어 관련 전시 부스를 찾으면 전시되어있는 마이크와 각종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브로셔를 볼 수 있다. 매년 전시마다 마이크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마이크 테스트 기회를 주기엔 전시 참가자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각 전시 부스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이나 악기 연주를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 삼아사운드가 준비한 공연에 눈길이 갔다. 삼아사운드는

삼아사운드 부스



SHURE 社の 마이크를 홍보하기 위해 보컬 팀을 섭외했다. 전시회장 앞은 마치 버스킹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보컬 팀은 아카펠라 곡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카펠라 음악은 기본이 되는 저음역, 가사 전달을 명료하게 해 줄 중음역, 밝은 느낌을 주는 고음역이 모두 잘 전달되어야 한다. 무반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 공연은 마이크의 특징이 어떠한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연이었다.

보컬의 노래를 들었다면 다른 부스에서는 밴드의 공연도 즐길 수 있었다. BLS 부스에서는 DPA 社の 마이크를 사용하여 밴드 라이브를 진행했다.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마이크의 특성과는 달리 악기에 사용하는 마이크는 각 악기의 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마이크를 이용한 수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 믹싱인데 WAVES의 LV1으로 오프레이팅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시연하였다. 악기에 사용하는 마이크와 믹싱 과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BLS의 WAVES Live



뮤직메트로의 iZotope 플러그인 시연

라이브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프로덕션의 음향도 중요하다. DAW를 이용해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플러그인이다. 시중에는 수많은 플러그인이 존재한다. 사용자는 플러그인의 홍수 속에서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더욱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뮤직메트로에서 진행한 iZotope 社の 플러그인 시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iZotope 社は 머신 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하고 원하는 소리를 찾아주는 플러그인을 선보였다. 머신 러닝으로 축적된 엄청난 데이터가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Blackmagic Design의 Fairlight 콘솔

마지막으로 음향 장비를 만난 곳은 A 홀이 아닌 C 홀이었다. Blackmagic Design 社에서 Fairlight 콘솔을 드디어 정식 출시했다. Blackmagic Design이 DAW인 Fairlight를 인수한 후 이 시스템을 DaVinci Resolve에 넣었다. 색보정 프로그램인 DaVinci Resolve에는 영상 편집기능이 있고, Fairlight의 가세로 오디오 편집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영상 효과 기능인 Fusion까지 품으면서 마치 후반작업에 필요한 종합선물세트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앞으로 DaVinci Resolve가 이름대로 포스트 프로덕션계에서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지 궁금해진다. 🎧

사진으로 보는 기타 음향 부스



고일은 젠하이저, 아비드, 사운드 디바이스 등의 음향 장비를 전시했다.



아비드 S6L-16C 디지털 믹싱 콘솔



사운드 디바이스의 신제품 포터블 믹서/레코더 Scorpio



Symetrix의 Jupiter, Solus NX, Radius NX, Prism 등 프로세서 상세 설명



사운드솔루션은 Symetrix 음향프로세서와 22.2채널 사운드 시스템을 전시, 시연했다.



Rycote, 젠하이저, URSA의 음향 액세서리



3층 C홀의 타무라는 믹싱 콘솔과 22.2채널 시스템을 선보였다.



방음 공간을 꾸며놓고 전시했던 소리지오 부스



사운드솔루션의 22.2채널 사운드 시스템 시연, 다양한 음원을 통해 현장감을 극대화한 소리를 청음해볼 수 있었다.



뮤직메트로 부스에서는 아비드 Pro Tools 2019의 특징과 OTT용 콘텐츠 제작 워크플로우에 대해 조용일 아비드 오디오 스페셜리스트가 강의했다.



사운드트리의 Archest, Archest Harmonics 프로페셔널 오디오 케이블은 높은 성능과 가성비 비로 인기가 높다. Archest 스피커케이블도 현재 연구개발 중이라고 한다.



사운드트리는 자사가 취급하는 다양한 브랜드를 전시했는데, 올해는 Grimm 오디오와 Weiss의 스피커, Dac, 이퀄라이저, 컨버터 등을 새롭게 소개하며, 전시했다.



테크데이터의 현장 공연 및 추첨 진행



야마하 뮤직코리아의 Rivage PM 시리즈 디지털 믹싱 콘솔 시스템 전시 및 시연

